

“우리들은 전통적인 혼인제도가 인간 문화의 근원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사회제도의 근간이 되고,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반영해 주는 제도로서 옹호해야 합니다”

-2008년 8월 1일 캘리포니아 카톨릭 주교회의 성명서에서-

주민 발의안 8번(Proposition 8)에 예(Yes)합니다

주민 발의안 8번의 내용 요약: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만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효하며 인정을 받는다”

주민 발의안 8번에 예(Yes)로 투표하시면 다음의 세가지를 이룰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결혼의 올바른 정의를 다시 세웁니다

결혼은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창조주께서 남녀가 결혼 결합하도록 남자, 여자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구분하여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시킵니다

주 대법원은 2008년 5월 15일에 동성끼리 결혼을 못 하게 함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판정은 결혼의 생물학적인 실상과 우리 인류의 문화와 언어, 법규에 깊숙히 내재해 있는 결혼의 참된 의미를 무시하고, 두 개인의 계약 동의만 있으면 결혼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재정의를 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결혼에 관해 교육시킬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법으로 유지되면, 공립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전통적인 결혼과 “동성 결혼”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가르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민 발의안 8번 (Proposition 8)에 예 (Yes)로 투표한다고 해서:

남자/남자 또는 여자/여자기리의 동성 결합자들의 권리나 복지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Domestic partners law, Family Code §297.5)에 의하여, 동성 결합자들도 결혼한 사람들과 똑 같은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Prepared by the staff of the
California Catholic Conference
1119 K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916) 313-4000 www.cacatholic.org